

[사회]

떠들떠들...이역만리 그리움 달랜 희망가

■ 구례 이주여성 한글학교 송년의 밤

“친구들과 함께 한 생일잔치는 이역만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지난 18일 오후 구례군 외국인 한글학교(교장 김성현) 강의실이 마련된 구례군 여성회관 2층. 한글학교 학생인 낯선 눈의 이주여성 40여 명이 어설플 한국어로 떠들떠들 생일축하곡을 부르고 있었다. 매일 열리는 생일잔치만 항상 어긋나는 박사 때문인지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생일 맞은 7명 파티도

이날은 12월에 생일을 맞은 이주 여성을 위한 생일잔치와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겸한 종합 송년파티였다. 이주여성들의 들뜬 표정처럼, 강의실도 형형색색의 풍선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환해졌다.

지난 3월부터 이주여성들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지역봉사단체 ‘구례섬치회’ 회원들과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례군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이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헌하러 들고 강의실을 찾았다.

6년간 꾸준한 한글교육

이날 축하를 받은 7명의 주인공 중에는 ‘포테트 새데’ 웨이(여·20)씨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에 시집온 지 4개월밖에 안된 웨이씨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생일을 한글학교에서 맞았다. 웨이씨는 “한국말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기 위해서 한글학교를 찾았는데 생일까지 챙겨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구례군 외국인 한글학교가 세워진 것은 6년 전. 이주여성들의 교육이 전무했던 시절이었다. 애초 취지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시골 노인



지난 18일 구례군 여성회관 2층 강의실에서 ‘구례군 외국인 한글학교’가 주최하고, 지역봉사단체인 ‘구례섬치회’가 후원하는 ‘이주여성 생일잔치 및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12월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과, 개인사정으로 생일잔치를 하지 못한 이주여성 7명이 축하를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들을 위해서였지만 노인들이 “우리 보다 외국인 새데들을 가르쳐라”며 자리를 비워주었다. 구례군 전체 이주여성 138명인 것을 감안하면, 30%가 넘는 이주여성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했다.

특별한 파티가 열리는 날엔 수업도 특별했다. 이날 수업주제는 ‘한

국의 종교’와 ‘2009년 나의 소망’. 짧은 한글실력 때문에 속마음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 ▲한국말 잘하기 ▲고향방문 ▲일자리 얻기 ▲임신 등 자신의 새해 소망을 빌고 있었다.

한글학교의 유일한 후원단체인 ‘구례섬치회’ 류재수 회장(구례경찰

서 근무)은 “농촌 이주여성들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회성 색색내기 행사도 많았다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정착과 2세들의 교육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때 이들이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학교의 유일한 후원단체인 ‘구례섬치회’ 류재수 회장(구례경찰서 근무)은 “농촌 이주여성들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회성 색색내기 행사도 많았다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정착과 2세들의 교육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때 이들이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형주기자 ahj@kwangju.co.kr

새해맞이 1초 늦어진다

1일 오전 8시59분60초 윤초(閏秒) 적용

2009년 새 해를 맞이하려면 윤초(閏秒)를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년에 걸쳐 1초씩 늦어지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을 기해 1초를 더하는 윤초(閏秒)가 3년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따르면 국제지구자전국(IERS)의 결정에 맞춰 오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세 계 협정 시 UTC)에 1초를 더해 평소에는 없는 시간인 오후 11시59분60초가 나타났다. 2009년 1월1일 00시 00분00초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 오전 8시59분60초를 만든 뒤 오전 9시00분00초로 표준시(KST)를 변경한다. 윤초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하루의 길이가 24시간 보다 미세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연합뉴스

직진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검토

경찰 1월부터 시범 시행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용 녹색신호가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도가 도입되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진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등 8개 지역의 교차로를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장원사도대상 시상식 장원문화재단(이사장 이원모)은 19일 광주 동국대학교 대강당에서 ‘제4회 장원사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양초교 이종철 교장이 표암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4명이 표창을 받았다. 장원사도대상은 동국대학교 설립자인 고 동강이장우 박사의 교육이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나명주기자 mjna@

생계형 범죄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대검 서민생활 안정 민생·치안 대책... 벌금도 깎아줘

경계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 주거나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한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조작 위법하는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벌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서 구형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자의 벌금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벌금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우발적이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미 사범은 전과에 상관없이 기소유예기로 했다. 또 검찰은 ‘사범을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한시적으로 가동, 불법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던 값지 못하는 바깥에 발생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서민경제 침체 5대 사범으로 ▲민생침해범죄(강·절도 등)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경제불안 조장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를 선정했다. /연합뉴스

서울 주요大 정시모집 예정보다 늘어

대입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최고 예정했던 모집인원보다 최고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서비스 사이트인 이투스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정시 일반전

형 기준으로 예초 모집 인원은 1천264명이었지만 최종 모집인원은 1천409명으로 11.5%(145명) 늘었다.

그러나 1천783명으로 2천132명으로 19.6% 증원됐고 연세대도 1천331명에서 1천755명으로 31.9% 늘었다. /연합뉴스

유해 매체 이용제한 연령 18세 미만으로 통일

음란, 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비디

오범상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연령을 정비해 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

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매체물과 관련한 청소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맞추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부음

- ▲이달수씨 별세 베품·사라씨 부친상 윤세한씨 빙부상=발인 2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양정숙씨 별세 류재섭(금강개발 대표)·재선(금강전력 대표)·양순·미순·지미씨 모친상 한경우·윤영환·김용훈씨 빙모상=발인 20일(토) 우산동 무등장 레식장 203호. 062-515-4488.
- ▲김상민씨 별세 전승선·승기·승남·해자씨 모친상 정진오씨 빙모상=발인 20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31-8906.

현대중공업 프리드

신뢰국영 정책시스템 프리드

현대중공업

1688-3740

산행안내 12면제재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영입·모임·매입·매매·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FAX: (062)227-9500

조직변경 공고

본 회사는 2008년 12월 18일 임시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성전기로서 조직변경이 의의가 있는 재건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0일

유한회사 부성전기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8-65 대표이사 신홍현

담양다이너스티CC 회원모집

1. 코스규모: 18홀, Par 72(전장: 6,180m)

2. 모집인원: 665명

가. 무기법면인: 9명 나. 무기법면인 1차: 2명

다. 황제리농협회원: 22명 라. 황제리농협회원 1차: 35명

마. 황제리농협회원 2차: 4명 바. VIP회원: 26명

사. VIP회원 1차: 88명 아. VIP회원 2차: 3명

자. 골드회원: 228명

3. 주중회원: 250명(1차 10명, 2차 10명, 3차 100명, 4차 130명)

4. 모집기간: 2008년 12월 20일 ~ 2009년 1월 31일(43일간 예정)

5. 입회금액

가. 무기법면인 10억원/무기법면인 1차 12억원

나. 황제리농협 5억원/황제리농협 1차 5억원/황제리농협 2차 5억원/1천만원

다. VIP 2억원/황제리/VIP 1차 3억원/VIP 2차 2억원/5백만원

라. 주중회원: 1차 3천5백만원/2차 4천5백만원/3차 5천만원/4차 6천만원

6. 수납은행: 광주은행 계좌번호: 006-107-913434

예금주: 에이취 에이취저지

7. 문의: (061)380-7516

2008년 12월 20일

(주)에이취 에이취저지 담양다이너스티CC 대표이사 최성만

염주동 병원임대

2층, 3층, 4층

각 45평

주변아파트

염주주공(1,118세대), 염주현대(604세대) 염주우미(376세대), 럭키, 우성, e-편한세상, 광명, 한양, 신동아, 단독세

대동 총 5,600여세대

염주체육관

월산동 ← → 금호동

대림역 염주현대 우성A 럭키 박영

현암 염주 우미

단독세대 염주주공A

광덕역 ← → 광주은행

세무서

HP: 011-608-2208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명매입할당장 앞)

(주)옥션코리아

법원명매입

062)222-8446

H.010-3668-8448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중동	48/233	8억3500만	5억8500만
오서동	50/52	1억1000만	1억1300만
금호동	104/234	7억1000만	4억8000만
중앙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월봉동	137/223	6억1000만	3억4000만
우산동	362/993	4억1000만	2억4000만
우산동	188/193	10억8000만	6억9000만
누문동	40/34	4억2000만	2억4000만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중동	41/458.8	1억4900만	8400만
소촌동	57/53	9500만	6820만
백운동	114/28	2억3700만	2억
신성동	67.5/51	2억3150만	1억8200만
화정동	134/83	6억3500만	2억9400만
진월동	38.6/46	8180만	5730만
봉성동	38/26	1억1970만	4300만
계림동	85/86	1억6740만	9370만
지산동	83/42	2억4740만	1억7320만
영광동	150/63	5270만	2400만
소산동	153/60	1억8300만	9120만
광명동	200/44	8840만	6200만
당양동	65.6/32.5	6100만	4270만

▶아파트			
소재지	평형	총 면적	감평가
내남동	2층	32	1억1000만
황선동	모모빌	1층	32
나주	송일주공	6층	20
차평동	리안타운	3층	25
문흥동	제일파크	7층	20
화정동	아민원세상	16층	67
문남동	주공단지	4층	32
금호동	일신	3층	32
차평동	중흥	6층	32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관산동	입	907	6600만
남양동	입	1210	4000만
영광동	전	619	1520만
관현동	임야	2283	6870만
이성동	대지	45.4	2700만
영광동	전	668	1440만
화정동	전	907	5100만
비안동	전	1443	19980만
봉성동	대지	96.8	3억9400만
장성동	전	713	3365만

▶공방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당양동	1444/890	10억3500만	7억2500만
문수동	634/185	11억2000만	6억4500만
호수동	1248/641	7억770만	3억9830만
안동동	1000/635	15억	6억9000만
용동	294/208	4억4030만	3억200만

▶오기소			
소재지	현물면적	감평가	최저가
화정동	67.1	1억8000만	1억1200만
목미동	19.7	8400만	5880만
운암동	22.7	9500만	5320만
화정동	16.3	6500만	4560만
신기동	25.8	1억3500만	7580만
운암동	44.9	2억	1억1000만
보림동	14.8	4000만	2800만

▶숙박시설 (모텔)/호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기동	80/114	3억3000만	2억2000만
현동	110/259	8억1820만	2억8330만
당양동	728/379	7억6500만	3억4300만
마출동	11	6200만	2780만
차평동	46.8	3억5000만	1억830만
월계동	119.7	11억2000만	4억

▶오기소			
소재지	현물면적	감평가	최저가
신기동	11.6	8000만	4480만
화정동	12.2	5500만	2464만
차평동	64	4억2000만	2억9400만
차평동	24	1억9000만	8400만

월산동		월계동		신기동		현동	
대/건	감평가	대/건	감평가	대/건	감평가	대/건	감평가
대118/건285	대119.7	대152/건588	대114	대194/건320	대1000/건635	대1000/건635	대1000/건635
매가14억7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감평가10억3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감평가11억2000만
교통편리,대면	최저가14억	최저가14억	최저가12억2000만	최저가18억2800만	최저가18억5000만	최저가18억5000만	최저가18억5000만
병원,요양원협	1층, 상가, 대면	5층상가/대면	13기/현물	식당,모텔	공원/하남공단내	공원/하남공단내	공원/하남공단내